

서울시, 매입 임대 목표치 미달... “상한제·구역제한 풀어야”

최근 5년간 목표 대비 실적 급감 강남·용산 전무... 특정 지역 쏠림 예산 집행률 저조... 실효성 논란 “매입 기준 완화로 공급 확대해야”

서울시가 추진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 매입 상한가 및 주택 매입 제한 구역 설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 주택을 사들여 청년 등에게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서울 도심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됐다. 지난 5년간 주택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은 2020년 97.2%, 2021년 56.7%, 2022년 13.5%, 2023년 36.5%, 2024년(9월 말 기준) 19.6%였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집행률 113.6%, 2021년 47.8%, 2022년 11.1%, 2023년 34.9%,

2024년 16.6%로 나타났다. 신우철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택 매입·공급·관리 과정을 보완해 보다 정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

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이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한제로 인해 시가 수요가 높은 도심이 아닌 비도심 지역의 주택을 다수 사들였고, 그결과 매입 임대 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쏠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2020~2024년 자치구별 주택 매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가 2155호(1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 1572호(11%), 강동구 1354호(9.5%), 송파구 1252호(8.8%), 관악구 1083호(7.6%)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개구에 소재한 주택이 전체 1만4282호의 51.9%(7416호)에 달하는 반면, 수요가 높은 용산(전체 매입 임대 주택 대비 0%), 강남(1.1%), 중구(0.4%)에서는 주택 매입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설정한 호당 매입 단가 상한액과 지역 시세 간의 차이

가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신 예산분석관은 “2024년도 주택 매입 공고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서도 매입 예산을 고려, 주택 매입가를 최대 6억원 내외로 설정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 제한 구역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매입 가능한 곳은 최근 2년간 사용 승인된 주택 중 미분양 공실이 많은 비도심 지역인 강서·구로·관악·은평·중랑·성북·도봉·마포·동작·강동구로 한정돼 있다.

신 분석관은 “미분양 신축 주택 매입의 경우, 서울시에서 매입 가능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초·중·고생 입학준비금 신청하세요” 광화문광장에 6·25참전국 상징 돌보 세운다

서울시교육청, 국·공·사립 전원 대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공·사립 초·중·고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25개 자치구와 함께 예산을 마련해 서울 소재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중·고교 신입생들이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한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tart.sen.go.kr>)에서, 초등학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https://on.zeropaypoint.or.kr/index.do>)에서 각각 신청 가능하고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은 학교별 확인 과정을 거쳐 중·고등학교는 2~3월 중, 초등학교는 3월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차 집중신청 기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에 입학준비금 신청과 포인트 등록 등 2단계 운영 절차를 거치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1단계로(입학준비금 신청) 간소화해 학부모의 신청과 포인트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22개국 ‘감사의 정원’ 조성 지하공간은 ‘세계적 다목적 광장’ 세종로공원도 도심숲으로 재정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인 ‘감사의 빛 22’를 공개하고,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에는 3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삼건축사사무소,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 엘피스케이프가 공동 응모한 ‘잇마루, 아랫마당, 추모공간:22’가 당선작으로 뽑혔다.

지상부 상징 조형물은 6·25 참전국을 나타내는 5.7~7m 높이의 22개 검은 화강암 돌보로 구성된다.

시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로 조형물을 만들고 측면에는 참전국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지상부. /서울시

유언어로 애송시, 문학작품, 글귀 등을 새겨 희생을 기릴 것’이라며 “22개 조형물은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검은 석재의 물성은 이들 국가와의 단단한 유대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상징 공간이 들어선다. 22개국 현지 모습을 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월이 설치된다.

방문객은 지상 조형물 사이 유리 브

릿지위를 걸어 세종로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유리 브릿지에는 스마트글라스가 내장돼 지하에서 올라다볼 때 큰 미디어 스크린으로 작동한다.

시는 첨단 미디어기술을 활용해 22개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기념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종로공원은 경복궁의 넓고 트인 공간감과 대비되는 밀도 높은 도심 숲으로 되살아난다. 연면적 8768㎡, 지상 1층~지하 2층에는 휴게 및 식음 시설, 다목적 공간 등이 마련된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 상징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빛 22’를 포함한 지상·지하 공간을 동시에 열 것’이라며 “세계인이 주목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3 | 해질 / 17:59

2월 4일 (화) 음력: 1월 7일

수도권 날씨 **-13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1725억 투입

경기도, 초120만원, 중1·고130만원 아동양육·학용품·자립지원비 등 포함

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예산

은 총 1천725억 원(국비 1천247억 원, 도비 205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 원)로 높인 것이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

게 되며,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 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23만 원(2만 원 인상),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되며,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천 원을 지원한다.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5만→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 ▲푸틴 “트럼프 질서 세워 유럽 정치 엘리트들 굴복시킬 것”
-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에 25% 보복관세 부과 발표

/사진 뉴스시스

- ▲캐나다, 트럼프 관세부과에 1550억달러 보복관세 부과
- ▲트럼프 관세 부과에 中 “타국 위협 많기를... WTO에 제소할 것”

- ▲백악관 “美 시장 접근은 특혜... 관세는 국익 보호 지렛대”
-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지하 순항미사일 기지 공개